"전통사찰 보존·문화정보화 지원"

조계종, 대선후보들에 무엇을 요구했나

◇8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조계종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조계종 정대 총무원장이 불교계 요청사항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이 8일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불교계 요청사항은 그동안 끊임없이 정부 측에 요구해 온 사항이거나 불교계의 사회적 활동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문화 관련 사항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불교문화 중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을 반영했다. 각 분야별 주요 항목과 내용을 요약했다.

문화 및 문화유산 분야

▲문화예산 3% 확보=문화인프라 구축과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산 3%는 시급한 과제다.

▲전통사찰 보존과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이 '전통문화 및 문화재구역'을 신설해 건축행위 제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문화사적 및 문화유산영향평가' 신설. '전통사찰보존법' 정비 등.

▲불교전통문화 정보화 지원=불교문화와 전통사찰의 문화관광자원화, 산중 사찰의 인터넷망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

▲국가 소유 점유 불교문화재 및 폐사지의 불교계 반환 또는 위탁=불교문화재 신앙공간에 위치해야 보존 용이 및 가치 확립.

▲불교문화재 보존과학연구소 설립 지원=사찰 소장 문화재의 유지 보존을 위해 절대 필요.

▲문화부내 전통문화진흥국 신설=현대문화중심의 문화정책 지양.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전통사찰보수지원비 증액과 각종 부담금 폐지=862개 전통사찰 중 14%에도 못 미치는 지원 대상 사찰 확충.

사회·환경·복지 분야

▲국립공원 보전 위한 대책 강구=자연공원 내 국가 자연 문화유산 관리기구를 통합한 '국가공원청' 설립. 자연공원법 폐지하고 국가공원법으로 대체 입법.

▲남북 불교교류 지원 확대=북한 불교문화재 복원과 남북 공동학술조사에 정책적 지원.

▲민간사회복지차원의 불교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지원=종단 차원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양성 정규 교육기관 설립 지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및 협조=종교적인 사안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교간 형평성 관련 분야

▲장 차관급 고위 공직자 인사의 종교간 형평성 고려=국가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도 종교적 형평성을 고려해 선출.

▲불교방송의 지방국 추가 개국 지원=종교방송의 공익성 고려해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필요.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제13대 중앙종회 개원 법어

"들어오긴 했으나 어떻게 나가 사부대중의 은혜 갚겠습니까"

境非心外有(경비심외유)하니 休覓主中賓(휴멱주중빈)하라

學道還爲妄(학도환위망)하니 敎玄已害眞(경현이해진)이라

경계는 마음 밖에 있지 않으니

주인 속에서 나그네를 찾지 말라.

도를 배우려고 하면 도리어 거짓이 되고

현묘함을 찾으려고 하면 진진함을 해치고 말 것이다.

拔群無比(발군무비)한 지혜와 逸群大士(일군대사)의 기틀로 제13대 중앙종회 의원에 당선되어 오늘 院(원) 구성함을 사부대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十方大衆(시방대중)이 一家(일가)를 이루고 賢愚是非(현우시비)가 一乘(일승)으로 돌아갑니다. 實際理智(실제이지)에는 한 티끌도 용납되지 않지만 萬行門中(만행문중)에는 一法(일법)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宗門(종문)의 門(문)이 사방으로 열려 있으니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 왔습니까? 또 들어오기는 했으나 어떻게 나가 사부대중이 베풀어준 은혜를 갚겠습니까?

집착하면 법도를 잃고 삿된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시비에 얽매이면 자기본심을 잃고 말 것입니다.

자기허물을 살피지 않고 남을 헤치는 것은 불조를 속이는 일입니다. 누구나 바로 말하고 바로 행한다면 而邊(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치와 일이 안전하면 고쳐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저절로 통하니 다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宗門(종문)의 근본을 깨쳐 안다면 바른 눈이 열려 佛慧命(불혜명)을 잇고 역대조사의 機用(기용)으로 종풍을 크게 떨칠 것입니다.

開口動舌(개구동설)에 無利於人(무리어인)이어든 或之莫言(계지막언)하라

擧心動念(거심동념)에 無利於人(무리어인)이어든 或之莫起(계지막기)하라

입을 열어 말을 함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마음 내어 생각을 일으킴에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거든 경계하여 생각조차 내지 말라.

종단명 상표등록 늘고있다

조계종 이어 조동·법화·삼론종 등 특허출원

천태·관음·일붕선교종은 이미 등록마쳐

종단 명칭의 상표등록 추진이 늘고 있다.

최근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이 종단 명칭의 업무표장 등록상표 특허출원을 낸 데 이어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도 지난달 중순에 종단 명칭 상표등록을 위해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에 협조공문을 접수시키는 등 종단 명칭의 상표등록 바람이 다른 종단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미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장 운덕),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총무원장 동봉) 등 3개 종단은 지난해 12월과 올 10월에 각각 종단 명칭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혜륜), 한국불교법화종(총무원장 은산),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승),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마정),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 한국조동종총본산(총무원장 학봉) 등 6개 종단들도 올해 말까지 종단 명칭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들이 이렇게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종단 명칭이 갖는 인지도가 대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현재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 조동종 및 삼론종 2개 등 유사 종단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신도들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기존 종단들은 사용 중인 종단 명칭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보장받고, 신생종단들로부터 유사 종단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종단 명칭을 똑같게 쓰고 있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는 종단 간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 종단 총무원장 스님은 "근래 들어 신흥종단의 난립과 기존 종단의 분종 등으로 관련 종단들이 종단 명칭을 놓고 마찰을 빚는 등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두 달 전부터 상표등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종단은 종단 명칭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종단의 분종 과정에서 남았던 해묵은 감정까지 얽켜있어, 앞으로 종단 명칭 상표등록 문제로 종단 간의 분쟁과 갈등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철우 기자

"정보인프라 구축·공익사업 전개"

불교정보화협 초대회장 현성스님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로 설립된 불교정보화협의회의 초대 회장 현성스님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불교가 한 치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도의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화 분야에 있어 불교계의 위치는 아직 미흡한 수준. 그러나 현성스님은 "우리 민족의 많은 문화유산이 불교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보존 발전 되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국가적인 대사라 할 정도로 할 일이 많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불교를 원형으로 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작업들이 포괄적으로 진행된다면 불교야말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문화 창출의 구심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제 첫 발을 내딛은 시점이지만 큰 욕심으로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는 천천히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으로 단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스님의 복안이다.

"협의회에 참여하길 원하는 종단과 단체, 업체와 개인들이 많아서 참여의 기회도 최대한 넓히겠다"는 스님은 "자문위원단, 연구위원단 등 포괄적인 조직의 가동을 통해 불교계 정보화 불사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싶은 사업은 불교계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 캠페인 활동과 교육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정신적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공익성 높은 사업들을 전개 하겠다는 설명이다.

조만간 회장단 모임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현성스님은 "초대 회장으로서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 기틀을 반드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722-4162, buddhanews.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자녀의 종교

1.불자님의 자녀가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인정해 준다 ②설득하여 불자가 되게 한다. ③일단 인정하고 차츰 대화로 마음을 돌리게 한다.

2.현재 불자님은 자녀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설문 참여: 11월 14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6호 A판 8면에 실습니다.

불기 2546년 동안거 금강경 결제

조계종의 오늘과 미래, 소의 경전 금강경으로 다시 본다

막막한 사막을 건너가려는 사람에게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의 길에 나선 이에게 경전은 곧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갈 길을 몰라 허둥대면서 「불립문자」, 「언어도단」만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물고 부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휘젓는 무딘 칼은 정작 갈고 닦아야 할 지혜의 칼을 뭉개고 맙니다.

지리산 실상사 화림원에서는 매 안거마다 수행과 하나가 되는 「경전 읽기 결제」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동안거 동안에는 근본 불교 사상을 철저히 계승하고 중국 선종의 바탕이 되었으며, 우리 조계종의 소의 경전인 《금강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각묵스님이 논주가 되어 스스로 번역하고 해설한 《금강경역해》를 주 교재로 쓰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재방의 선지식과 강사, 화림원 대중이 참여하여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본과 다양한 번역, 주석서의 교학적 이해와 선종의 입장을 아울러 살피는 열띤 논강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논의하고 정리된 내용은 이번 「금강경 결제」를 화림원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개최하는 불교신문 지면에 연재됩니다. 이 전대 미문의 활짝 열린 논강을 통해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지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 믿습니다. 출가 대중은 물론 재가 불자들의 열렬한 성원과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 기 간 : 동안거 중 10주 (올 11월 23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2) 일 시 : 매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 장 소 : 실상사 화엄학림 강당
4) 교 재 : 각묵스님의 《금강경역해》 [불광출판부 발행] 개별 구입
5) 참가대상 : 사부대중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6) 동 참 금 : 10만원
7) 입 금 : 우체국 401711-01-000452 (예금주 : 화림원)
8) 접수 및 연락처 : 실상사 종무소 063)636-3031
화림원 063)636-3990, 636-3994
실상사 홈페이지 화림원 게시판 :
http://www.silsang.net/ez2000/ezboard.exe?cb=hwalim

불기 2546년 11월

주 관 : 지리산 실상사 화림원 협 찬 : 불교신문

화림원에서 함께 정진할 도반들을 모십니다

실상사 뒤쪽으로 약 1km쯤에 자리한 아담한 황토집의 화림원은 학력 졸업 이상, 또는 승납 5년 이상, 세납 50세 이하의 비구로서 화림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부응하는 조계종 승려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화림원은 승납과 세납, 전공분야 등 개인간의 다양한 차이를 떠나 모두가 절차탁마하는 도반으로서 三學을 균등하게 수행하고, 다양한 수행의 조화와 전법 등이 함께 하는 수행도량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자고 설립된 곳입니다.

이론과 실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수행을 위해 안거 동안에는 참선을 중심으로 경전 연구를 병행하고, 해제 기간에는 경전연구를 중심으로 참선을 병행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1년중 1안거 이상의 기간을 원내에 안거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견디며 모난 데는 갈아내고, 모자라는 곳을 메워줄 도반들을 모십니다.

■연락처 : 전화 063)636-3990, 636-3994

■실상사 홈페이지 화림원 게시판 :
http://www.silsang.net/ez2000/ezboard.exe?db=hwalim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지 리 산 실 상 사
화 림 원 원 감 재 연